조선시대 불교는 활활발발했다

주목! 학술서 김용태 교수의 〈조선불교사상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시대를 통칭 '숭유억불의 시대'라고 말한다. 조선왕조 500년은 유교를 국가 통치이념으로 삼아 불교를 배척했다. 승려는 천민으로 지위가 낮아졌고, 도성 출입도 금지됐다. 삼국 · 고려시대에는 활발한 영향력을 가졌던 불교가 하루아침에 비주류가 돼 민간의 신앙으로만 면면히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불교'의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정말 그러했을까.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가 최근 발간한 연구서 〈조선불교사상사〉는 우리가 아는 상식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조선불교사상사〉는 유교의 시대 조선을 가로지르며 전개된 불교적 사유의 지형을 탐색하고 복구해나간다. 기실 불교는 조선시대에도 그 생명력을 연면히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선(禪)과 교(敎)의 사상을 계승하고 시대에 맞게 종교적 활로를 넓히며 나름의 사회 · 문화적 역할에 충실했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교육과 수행의 체계화, 법맥과 사상의 계승을 통해 선과 교, 의례와 신앙을 아우르는 종합적 전통을 구축해왔다. 오늘날 한국불교 전통의 원형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형성되었거니와 한국인의 사유와 가치, 문화와 예술 등에 미친 불교의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김용태 교수는 연구서에서 엄밀한 자료 분석과 비교지성사의 방법론으로 조선 불교사상의 전체상을 온전히 재구성해내기 위해 진력한다.

지난 100년간 축적된 조선시대 불교 연구의 성과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교사상을 선과 교의 융합과 계승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특히, 제1장을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은 한국불교 연구의 기반을 닦고 이해 수준을 높인 반면, 오리엔탈리즘이 투영된 폄훼의 도식과 부정적 타자화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고, 조선시대 불교에 '억압과 쇠퇴'의 굴레가 씌워졌다"고 주장한 부분은 눈길을 끌기 충분하다.

이어 저자는 조선의 불교를 이끈 선지식들의 사상과 실천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한 뒤, 유교사회의 종교적 지형과 시대성을 총체적으로 재조명한다. 역사적 문맥 속의 시대 지향과 의례 형태 그리고 신앙의 양상들을 포괄하여 불교사상의 외연을 확장하고, 제도의 변화까지 고려하여 불교사상이 전개되는 사회적 함의를 짚어낸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조선=유교' 도식화 넘어서
조선불교 사유 지형 고찰해
'억압 굴레', 日학자 만들어
동아시아 차원서 조명돼야

저자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제대로 도출하기 위해 전통과 근대의 가교인 조선불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성리학 일변도의 조선시대 사상사에 대한 성찰적 계기를 함께 모색한다. 한국적 전통이 형성된 조선시대를 더 깊이 통찰하기 위해서는 유교라는 잣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불교를 비롯한 여러 프리즘을 통해 그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용태 교수는 "조선시대 불교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재조명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중일 삼국은 긴 시간 각자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1500년 이상 동질적인 불교문화권을 공유해왔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유교 · 도교 · 기독교 등은 상존하던 경쟁 상대였을 뿐, 불교를 매개로 한 인적 · 물적 교류와 사상과 문화의 유통 및 확산, 정체성의 향유는 동아시아 세계의 지역성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조선시대 불교 연구로부터 동아시아의 근세를 다른 차원에서 독해하는 도전적 담론이 제기될 수 있는 전거로 작용한다.

익산 미륵사지 가마터 보호각 새 단장

문화재청 3일 일반 공개
주변 조화 디자인 '눈길'


새롭게 조성된 미륵사지 가마터 보호각의 내부 전경.

익산 미륵사지 내에 있는 가마터의 보호각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모했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정부혁신이자 적극행정을 위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 사업의 하나로, 익산 미륵사지 내 가마터 보호각을 새롭게 단장하고 3월 3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보호각은 그동안 색과 재질이 유적과 이질감이 있어왔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새로 단장한 보호각은 기존의 벽과 지붕을 없앤 후 진회색의 금속판으로 건물 전체를 감싸고 근처에 소나무를 심어 유적 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난간과 금속 창살은 커다란 투명 유리창으로 교체하고 전시 소개 안내판도 설치해 가마의 모습도 더 정확히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각 내 화장실도 설치해 관람객들의 편의도 증진시켰다.

익산 미륵사는 백제 무왕 대(600~641년)에 창건되어 1600년대까지 유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가마터는 조선 시대 기와 가마터로, 미륵사에서 기와를 자체 공급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가설 건물이던 기존 보호각을 한층 더 세련된 건축물로 새로 단장한 만큼 유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관람 편의시설(화장실) 설치로 문화재 관람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람객들이 문화재를 더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호시설의 디자인과 설치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한문아카데미 연수생 추가 모집

3월 12일까지… 비대면 면접 가능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 불교한문아카데미는 2021년도 1학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연수생을 추가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3월 12일까지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선발연수생의 면접과 필기전형은 일정 협의 후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한문아카데미는 지난 2012년부터 조계종 교육원과 협력해 운영하는 불교한문 교육기관으로 한문불전 역경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번역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기본과정'과 역경전문가를 배출하는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매학기 15주 동안 강좌를 진행한다.

기본과정 선발연수생은 불교 및 한문불전 공부에 관심 있는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심화과정 선발연수생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과 실력이 요구되므로 필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정원은 각각 30명과 15명이다.

이번 학기부터 심화과정의 필기시험 과목이 〈대승기신론〉〈현정론〉〈도서〉에서 규봉 종밀의 〈원각경대소석의초〉권 제1로 바뀌었다. 출제위원들은 "응시자마다 다른 문제를 출제할 계획"이라며 "심화과정의 응시자는 사전에 심도 있는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합격자는 모두 개별 통보한다.

불교한문 전문가를 양성하는 만큼 불교한문아카데미 수강시 특전도 있다. 조계종 스님의 경우 수강료가 면제되며, 선발연수생 과정을 수료할 경우 승가고시에서 2년의 교육경력을 인정받는다. 성적우수자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된다.

수업 기간은 6월 14일까지, 월~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강의가 진행된다. 기본과정은 〈사십이장경〉(선암 스님), 〈불교원전대독〉(최종남), 〈맹자〉(공근식), 〈구사론〉(박인성), 〈불교한문법〉(박영록)이 교과목이다. 심화과정은 〈금강경삼가해〉(이상하), 〈문집선독〉(선암 스님), 〈유불대론〉(성태용), 〈기신론필삭기〉(대진 스님), 〈고승비문〉(박해당)을 다룬다.

조기룡 불교학술원 교육홍보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교육부 지침 준수를 위해 실시간 비대면 강좌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사태가 진정되는 추이에 따라 대면 강좌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02)6713-5154 신성민 기자

신문 원고로 본 법정 스님 시대정신

여태동 불교신문 편집국장
법정 스님 주제 박사 학위
〈대한불교〉 원고 분석통해
시대정신 형성 · 전개 고찰

법정 스님(1932~2010, 사진)은 한국 현대사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문사(文師)이면서 수행자였다. 스님이 글을 통해 설파했던 무소유 정신은 고도성장기 한국사회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금언(金言)이었다. 스님은 많은 글을 남겼고, 이중에는 현재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와 일간 신문들에 게재한 칼럼들도 있다. 이들 칼럼들은 수필가로서의 법정이 아닌 불교와 사회를 맑히기 위함에 목적이 있었다. 그렇기에 법정 스님의 신문 칼럼은 스님이 보여줬던 시대정신의 궤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초이기도 하다.

여태동 불교신문 편집국장의 박사학위 논문 〈법정의 시대정신 형성과 전개 과정 연구〉는 신문 발표 원고를 중심으로 법정 스님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형성되고 실제적으로 전개됐는지를 살피고 있어 눈길을 끈다.

1954년 출가한 법정 스님은 해인사에서 고려대장경을 공부하고 번역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고, 동국대 동국역경원과 인연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경전번역에 나섰다. 〈대한불교〉에 원고를 쓴 것도 비슷한 시기이고 이후 법정 스님은 주필과 논설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실제 주목할 것은 일반이 알고 있는 에세이스트 법정이 아닌 언론인으로서 법정이다. 여 국장의 주장대로 "1960년대 불교교단의 혼란한 틈바구니 속에서도 유려한 글로 불교교단, 특히 조계종단의 발전을 위한 고언"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실제 법정 스님이 〈대한불교〉에 원고를 게재하며 주장했던 비판의식은 현재의 한국불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970년 2월 28일자 〈대한불교〉에는 법정 스님의 '침묵은 범죄다-봉은사가 팔린다' 칼럼이 실린다. 여기서 법정 스님은 현재 수용하는 삼보정재가 선사들의 피눈물나는 이면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렇기에 지금의 우리는 정재를 수호할 의무는 있어도 팔 권리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 국장은 "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봉은사 부지를 대량매각하려는 종단의 처사에 반대하는 법정 스님의 의지를 가득 담은 글은 명칼럼으로 평가된다"면서 "스님의 정론직필 주장은 삼보정재 유출을 비판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스님의 그러한 논지는 60년이 지난 현재 판단할 때 천문학적 금액에 이르는 불교재산 유출을 막는 올바른 판단이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조계종 재산이 망실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법정 스님의 올바른 주장이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 국장은 법정 스님에 대한 사상적 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국장은 "법정 스님의 글은 철저하게 준비된 문장으로 한 문장의 글 속에는 반드시 이론적 근거와 실천적 방법이 들어 있었다"면서 "불교계가 하루 속히 '법정사상연구소'를 설립해 법정 스님의 사상을 활발하게 연구했으면 한다. 나아가 '법정학'이 정립돼 후세에 다양한 영역으로 전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2-1949-5544-0 (예금주 : 주식회사 연당)

제 10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4월 6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 (02)741-0495~6